

2024 제4회 청주 파빌리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전 주제

“동부창고, 변화된 공간 무엇으로 채울까”

■ 공모전 취지 및 배경

▣ 대상지 알아보기

올해가 <청주·청원 통합10주년> 및 <문화도시 5개년 사업> 마지막 해로서, 이에 즈음한 지역의 행사 중 <청년 창의인력 · 문화창작소 운영>과 연계하여 창의 생태계 조성 및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문화제조창 단지의 전면 광장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시행했던 주제가 ‘비워진 공간, 채워질 기억’이었다.

올해는 동일 단지 내의 동부창고 전면광장을 대상으로 “변화된 공간, 무엇으로 채울까”을 주제로 하여 생산·보관의 역사를 지닌 공간에서 21세기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변화된 동부창고의 외부공간에 창의적 작품을 조성하여, 이것이 도시 경관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공간의 공공적 가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의 신선한 창작의지를 구현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2024 제4회 청주파빌리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 문화제조창(동부창고)의 기억

청주연초제조창 개설(1946년) 당시 담배생산·제조의 중심기능인 “ㄱ” 자형 본관동과 원료 보관동, 담배잎 보관창고로 활용되었던 동부창고가 주된 건축물이었으며, 정문쪽에는 사무동, 후생동, 식당등의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공장 내 문화공간으로서 목욕탕, 이발소, 종교시설, 동아리방, 담배연구실과 공장 내 소모품인 가구들을 제작하는 목공실도 있었고, 본관동 전면의 운동장은 직원들의 생활체육장소 및 식당동과 연계된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1958년 국내 최초의 필터담배 “아리랑”을 생산하였으며, 약 3,000여명이 되는 근로자의 월급날(매월20일) 두툼한 노란봉투(일명 똥봉투라고도함)를 들고 나오는 날에는 제조창 앞 골목에 장이 열렸으며, 선술집, 삼겹살, 반찬거리, 생필품직거래장터 등 청주 시내의 경기가 활기치는 날이었다고 한다.

1999년 원료공장을 폐쇄하면서 일부 기계설비는 북한에 보내졌다고 하며, 당해 청주시에서 매입 후 현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 문화산업전문기업들이 입주하여 굴뚝없는 창조산업으로 운영중에 있다. 또한 동부창고는 담배잎을 수매하여 보관하던 창고로서 인근 증평, 진천, 음성등지에 담배농사가 성행하였고 이로 인해 시골집 마당 한쪽에는 흙벽으로 만든 건조창고가 마을풍경 중 하나였으며, 지금은 생활문화센터, 공연연습장, 꿈꾸는 예술터 등 시민문화 및 예술교육의 허브로 조성, 이용되고 있다.

한편 본관동은 2011년 12월 매입계약을 하면서 “연초제조창”을 “문화제조창”으로 개명,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한 한국공예관을 유치하였으며 2023년 2월 부터 청주시청 제2청사가 입주하면서 일층 지원시설인 카페, 기획상품, 일부 판매 및 식당들이 현재 성업 중에 있다.

■ 주제 해석과 방향

☞ 문화제조창 동부창고의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문화제조창 동부창고는 연초제조창이 재창조된 문화산업단지에서 시민의 예술문화, 휴식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충북 청년축제, 전통공예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벤트 광장이다.

이 이벤트광장에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활기찬 공간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나무를 심을까, 수 공간을 만들까, 상징물을 만들까, 그대로 비워둘까... 시민과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만남을 갖고 휴식도 하는 장소, 문화예술을 즐기고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는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광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장소의 이미지가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기억의 가치가 달라진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진화돼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프로젝트는 광장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파빌리온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광장이 미래에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보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조형물 설치로 광장이 관심을 갖게되는 장소가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 향후 공공성을 갖는 광장이 가져야 할 역할을 가늠해보는 실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건축적, 조형적 경험을 제공할 디자인 방안 제시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건축적, 조형적 측면에서 관심과 흥미요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전시 등이 이루어지며, 그 중 수도권 건축학과 학생들의 자발적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UAUS의 '대학생 건축 아이디어 전시회'는 다양한 장소에서 색다른 실험을 통해 즐거운 건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색다른 조형과 공간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인 디자인을 통해 광장의 미적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 구축에 대한 제작 방향 제시

본 프로젝트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1:1 스케일로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파빌리온을 제작하는 것으로, 한 달 정도 전시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파빌리온 설치에 목적을 둔다. 친환경 및 재활용 재료 등을 사용, 제작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고려 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주어진 파빌리온 사이트 범위 (바닥넓이 9㎡, 높이 3.6m) 내에서 구조적 안정성, 자연 환경에 대한 내기후성, 효과적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